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행복 전남' 이끈다

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보성 대상·해남 최우수상 시상 대원 전문성 강화·지원 확대...도민에 힘 되는 역할 다짐

전남도는 6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 공유대회를 열어 도민에게 실질적 힘이 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도민에게 힘이 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지사, 전경선 도의회 부의장, 22개 시·군 및 297개 읍·면·동 복지기동대원, 협력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민

목포시 대성동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장 등 66명에게 전남지사 표창을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경진대회 시상에선 '나눔함이 활짝핀 성준이의 보금자리'를 발표한 보성군이 대상, '알코올 중독 극복, 새 인생을 펼쳐라'의 해남군이 최우수상, '내 보금자리~ 깨끗하게! 깔끔하게! 청결하게!'의 무안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복지기동대와 마을주민들이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의 구례군, '여수동백빵과 함께 세상밖으로...'의 여수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또 복지기동대원들은 '우리들의 다짐' 낭독을 통해 서로가 힘을 모아 전남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며,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도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대회를 통해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행복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는 복지기동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전남의 대표 행복보장책으로 더 많은 도민이 서비스를 받도록 민선 8기 동안 복지기동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전남을 사랑하는 복지기동대원들의 마음을 모아 전남 외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 안내 링크를 발송하는 시간도 가졌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민관 협력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복권기금 신규사업 선정으로 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도민 행복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재정기자



사회 취약계층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2022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 공유대회'가 6일 오후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22개 시·군 및 297개 읍·면·동 복지기동대원, 협력기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남도 제공>

광주지역 유망기업 증권시장 상장 지원

市-광주TP-창업·중소기업 8개사 협약 체결 2년내 코스닥 상장 목표...투자유치 설명회도

광주시가 광주테크노파크(이하 광주TP)와 함께 지역 유망기업들의 코스닥 상장 지원에 나섰다.

광주시는 6일 "올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엑센트리벤처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와 합동 투자유치 설명회(IR)를 열고 (재)광주테크노파크, 지역 유망 창업·중소기업 8개사와 '지역 유망기업 증권시장 상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 기업은 ▲(주)그린바이오 ▲(주)넷은 ▲동진기업(주) ▲무송지오씨(주) ▲씨아이에스케이(주) ▲(주)에스오에스랩 ▲(주)티디엘 ▲(주)유엔스바이오 등 8곳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기업 투자유치 및 증권시장 상장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기업 맞춤형 상장 지원 서비스 제공 ▲기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호 간 필요로 하는 업무협력 등에 힘을 모은다.

광주시는 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 지역 유망기업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코스닥 상장사 수는 547개사였으나 이 중 광주 중소기업은 북구 첨단산단 소재 광통신용 송수신기 모듈 전문 생산업체 '오이솔루션' 1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광주TP는 2020년을 시작으로 지역의 상장 후보기업 22개사를 발굴,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와 협력해 예로 사항 청취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 우수 사례 노하우 강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실질전략 강연 등 투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얻어붙은 IPO(기업공개) 시장 상황에도 상장 후보기업 22개사 중 8개사가 향후 2년 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돼 광주 기업 생태계가 탄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인공지능(AI) 투자펀드 운용사를 비롯해 약 40여개 투자사가 참가, 총 21개사의 IR 피칭을 통해 투자 가능성 검토와 투자자와 기업 간 1:1 투자상담회도 이뤄졌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5천억 펀드 조성 추진과 함께 지역 내 벤처캐피탈 및 엑셀러레이터, 유관기관들과 투자유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창업 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지역 내 코스닥 상장기업을 많이 배출해 지역 내 창업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전파·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기자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姜시장, 프랑스 앙기앵레뱅 시장과 화상회의

광주시가 포르투갈 브라가시에 이어 프랑스 앙기앵레뱅시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교류·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전날 프랑스 앙기앵레뱅의 필리페 수에르 시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양 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시장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을 넘어 문화 예술 분야에서 다각도로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강 시장은 "앙기앵레뱅이 2013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데 이어, 2014년 광주가 지정됐다"며 "광주와 앙기앵레뱅은 미디어아트를 통해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하고, 이 속에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공통의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앙기앵레뱅은 프랑스 최대 디지털아트 축제인 '뱅뮈메리끄'를 개최하고 있다"며 "광주도 세계 3대 비엔날레의 하나로 꼽히는 광주비엔날레를 2년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인 고 백남준 작가가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고 광주 출신 이인남 작가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문화 예술 중심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에르 시장은 "광주와 앙기앵레뱅은 1천만km 사이에 있지만 매년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광주는 인구가 150만명이고, 경제개발도 잘 이뤄진 큰 도시여서 아주 기대가 크다"고 화답했다.

강 시장과 수에르 시장은 양 도시의 대표적 아트 축제에 서로를 초청했다. 수에르 시장은 내년 6월 열리는 프랑스 최대 디지털아트 축제인 '뱅뮈메리끄'에, 강 시장은 내년 4월부터 7월까지 열리는 '광주비엔날레'에 서로를 초대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선강기자

광주 블루스 밴드, 韓대표 국제대회 참가

마인드 바디 앤 소울, 비공개 오디션 영상 IBC 심사·선발

광주에서 활동하는 블루스밴드가 한국을 대표해 '2023 국제블루스대회'에 참가한다.

광주시는 6일 "블루스밴드 '마인드 바디 앤 소울'(Mind Body And Soul, 이하 MBNS)이 2023년 1월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멤피스에서 열리는 2023 국제블루스대회(International Blues Challenge, 이하 'IBC')에 한국 대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 대표팀은 국내에서 치른 비공개 오디션의 영상을 IBC가 심사해 선발됐다. MBNS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이인규(35·기타·보컬), 최민석(19·베이스), 박소니(27·기타·하모니카), 강성실(26·드럼)씨가 2019년 결성한 4인조 블루스 밴드로 그동안 미니앨범을 발매하고 '2019 레드콘 뮤직 페스티벌', '2020-2021 서울블루스페스티벌' 등 다양한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올해는 '광주음악장작소 음원제작지원'에 선정돼 지난 5일 정규 앨범 'Road To Blues'가 각종 음원사이트에 공개됐다.

IBC는 매년 세계 각국의 블루스 뮤지션들이 블루스의 본고장인 미국 멤피스에 모이는 대회로 Youth, Band, Solo/Duo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량을 펼친다. 이 기간에는 세미나, 쇼케이스,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박선강기자

도,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

전남도는 6일 "최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공공건축제도 및 정책변화에 대응,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2022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한 이번 교육엔 시·군 관계공무원 및 건축사 150여 명이 참석해 최근 공공건축 동향을 공유했다. /김재정기자

교육은 방재성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장의 '공공건축 기획업무의 이해' 강연과 백선경 부연구위원의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제도의 이해' 강의로 진행됐다.

정영수 건축개발과장은 "공공건축 제도와 정책변화에 대응해 전남도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도민과 소통하고 직원 역량을 강화해 도민이 만족하는 공공건축물이 건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밸런스 라인

엑스페론